

원주 간현관광지에 ‘관광 랜드마크’ 통합건축물 조성

케이블카 탑승장·로컬푸드 직매장·전시판매장 등 입주



1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2 레일바이크

소금산 출렁다리로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한 강원 원주 간현관광지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통합건축물이 세워진다.

원주시는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을 통해 설치되는 케이블카 탑승장과 지역 특산물 쇼핑, 먹거리 등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통합건축물을 간현관광지 정문 앞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총 320억원을 투입해 약 7천㎡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통합건축물은 케이블카 하부 탑승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당, 내륙 어종 자연 체험관,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센터, 옷·한지 전시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케이블카 탑승 전과 하차 후 로컬푸드 직매장, 식당, 옷·한지 전시판매장에서 식사하거나 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이용객 동선을 최소화해 새롭게 설치되는 관광 상품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내륙 어종 자연 체험관에는 전시 공간과 내수면 어종 공동작업장, 다목적 교육실이 들어선다. 전시공간인 생태 체험관은 쓰가리 아쿠아리움 및 자연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공동작업장은 섬강의 내수면 어종을 1차 가공하는 시설이다.

또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센터는 ICT 수생생태계 정보관, ICT 첨단기술정보관, 특수영상관을 갖춘다. 이 두 가지 새로운 관광상품은 원주의 내륙 어종을 주제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시

와 체험이 이뤄진다.

이 건축물은 3개 정부 부처 공모 사업을 포함한 원주시 5개 부서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원주시는 통합건축물을 포함해 약 1천100억원이 소요되는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에 유리 다리인 보도 현수교(404m)와 잔도(326m), 데크 산책로(666m), 전망대, 에스컬레이터(260m), 하늘정원(4만7천777㎡), 케이블카(973m),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통합건축물→케이블카→출렁다리→하늘정원→데크 산책로→잔도→전망대→보도 현수교(유리 다리)→에스컬레이터→상가 시설→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구축하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대 난제였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으며 5개 분야 시설 계획을 통합, 관광 난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약 1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❶

참으로 따뜻한 겨울이야기 ‘원주의 먹거리’

원주 황둔쌀찐빵

모두가 저마다의 제철음식이 있다. 취향이아 제각각이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서늘해지는 요즘 같은 때엔 아무래도 따끈한 먹거리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런 저런 음식들 중에서도 유독 향수를 자극하는 건 역시나 찐빵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뽕안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대한 찐솥 앞에서 군침 흘려본 적이 있지 않던가. 어쩌서 추울 때 먹는 찐빵이 유독 더 맛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맛있는 찐빵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료한 편이다. 특히나 원주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신림면 황둔.<행복원주 11월호 중>

따뜻한 황둔찐빵마을로 서둘러 가자.
어느 집을 가던 정념치고 맛나는 찐빵 가득.



이번 겨울엔 제대로 한번 맛 보자
원주 대표음식 ‘원주병잎밥, 복숭아불고기, 원주추어탕, 관찰사 응심이’



원주추어탕



복숭아불고기



원주병잎밥



관찰사 응심이